

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지도교수 허철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정선

2005년 8월

#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정선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

##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김 정 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1 :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2 :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특성은 어떠한가?

문제3 :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소와 자아존중감 하위요소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제주도 내 7개 초등학교 각 2학년 씩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대상 남자 254명, 여자 252명 총 50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19부(남 190부, 여 229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자녀들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arkhuff의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하여 마정건(1988)이 제작하고 정세용(1994)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 삭제한 ‘부모님의 촉진적인 의사소통 검사’를 본 연구자가 약간 수정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검사는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지각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를 김치영(198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2.0 Windows를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Onw-way ANOVA), Tukey의 다중비교(TMC : Tukey's Multiple Comparison)에 의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하여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 수준은 기본촉진, 비촉진, 심화촉진, 순이다.

둘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특성은 신체외모를 제외한 학업역량, 사회적수용, 운동역량,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이 더 촉진적일 때 높다.

셋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이 비촉진적인 경우보다 촉진적인 경우가 자아존중감이 높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수용 받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받음으로써 자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고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소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이다. 즉,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이 촉진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이는 어머니의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자원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촉진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즉,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에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어머니가 촉진적 의사소통을 통해 조력적 인간관계를 제공하는 것은 한 개인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문제 .....	3
II. 이론적 배경 .....	5
1. 의사소통의 개념 .....	5
2. 의사소통의 요소 및 수준 .....	7
3.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특성 .....	17
4.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 .....	20
5.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	22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25
1. 연구대상 .....	25
2. 측정도구 .....	25
3. 자료처리 .....	27
IV. 연구결과 및 해석 .....	29
1.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에 대한 수준별 집단 사례 .....	29
2.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차이 .....	30
3.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소와의 차이 .....	31
4.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	40
V. 요약, 결론 및 제언 .....	43
1. 요약 .....	43
2. 결론 .....	46
3. 제언 .....	48
참고문헌 .....	49
Abstract .....	54
부 록 .....	57



## 표 목 차

<표Ⅲ-1>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검사의 하위요소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6
<표Ⅲ-2>	자아존중감 검사의 하위요소에 대한 문항구성 및 신뢰도	27
<표Ⅳ-1>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에 대한 수준별 사례 수	29
<표Ⅳ-2>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차이	30
<표Ⅳ-3>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역량 차이	32
<표Ⅳ-4>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사회적 수용 차이	33
<표Ⅳ-5>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운동역량 차이	35
<표Ⅳ-6>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외모 차이	36
<표Ⅳ-7>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행동품행 차이	38
<표Ⅳ-8>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전반적 자아가치 차이	39
<표Ⅳ-9>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41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최초의 만남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양식, 행동양식 및 습관이 형성된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인간관계로서 이러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즉 자녀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어떠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에서 어머니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잘못된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긴장을 유발시켜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김미호, 1989). 따라서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어떤 조력적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자녀의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력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가정교육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통한 조력은 자녀의 인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마정건, 1988).

부모 자녀관계는 주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자기 행동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의 자아와 기대하는 자아 사이의 부조화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매체가 된다(신수정, 1994). 즉 부모가 자녀에게 촉진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조력적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건전한 의사소통을 통한 촉진적 조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바람직하게 형성된 자기개념은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요즈음 학교

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 과잉행동 아동이나 친구들 간의 따돌림 문제, 부적응문제 등의 원인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애랑, 2002).

현대가정은 고유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옮겨가고 가족관계의 유대가 약화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전문화된 사회제도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대체되고 있으며, 가족이 개인으로 분해되는 현상이 나타나 가족 내에서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바, 특히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의사소통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박은주, 1994).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물론 가족도 변화하고 있고, 가족의 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도 많은 경우 변화하는 가족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어 청소년 문제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오늘날 대부분 청소년들의 생활 근거지나 다름없지만 일부 통신 문화에 소외된 청소년들이 있어 이들 세대 내 의사소통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기성 세대와의 세대간 의사소통 문제도 심각할 정도이다.

청소년 자녀는 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개별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 시기에 부모와 청소년 자녀들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장휘숙, 1995).

마정건(1988)과 윤현영(1990)은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병리적 인성 특성이 감소하고 건전한 인성이 형성됨을 보고하고 있다. Bledsoe와 Wiggins(1974)에 의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학업포부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국(1998)은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촉진적일수록 자녀의 학습된 무력감을 덜 느끼고 보다 건강한 성격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변창진(1989)은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유지나 높은 학업성취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내리는 평가라고 했으며, 이는 자신에 대한 칭찬 또는 비난의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가를 나타낸다고 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써 자기 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과의 접촉, 특히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Rosenberg, 1965).

지금까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왔지만,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가정환경,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목적을 두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 수준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의 연구 목적을 밝히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소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소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1.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비촉진, 기본촉진, 심화촉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비촉진, 기본촉진, 심화촉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소(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본 연구의 기본관점, 방향설정, 개념정의를 위한 기초로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communis로 그 뜻은 ‘공통’ 또는 ‘공유’라는 뜻이다. 즉 의사소통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수용자측의 의식이나 태도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박연호, 1987).

Maturana(1987)의 인식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무엇을 인식하느냐가 곧 아는 것이고, 아는 것, 곧 인식하는 것을 행동한다고 보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지각과 이해, 세상을 알아가는 나만의 독특한 모델이 의사소통이다(김혜숙, 2003, 재인용).

인간 사회에서 인간 상호간의 접촉을 유지시켜 주는 과정이 의사소통이며 인간을 현실 사회 과정 속에 구체화 시켜 주고 있으며 인간은 의사소통에 의하여 자기 스스로를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또한 삶을 유지해 나간다(김정국, 1998).

의사소통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상징적 매개물을 사용하여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또한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자세, 머리를 기울이는 방식, 얼굴 표정,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갈등 해결에도 도움을 주며, 서로의 느낌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며 상대방을 수용해 줄 때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가 유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장휘숙, 1995).

Schramm(1971)은 의사소통에는 첫째, 인간으로 하여금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시키고, 둘째, 새로운 사회성원을 교육시키며 셋째, 즐거움을 주고 넷째, 서로 설득하고 통제해서 합의를 얻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Kelly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용시키기 위해 자극을 보내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Miller는 행위자가 수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윤현영, 1990, 재인용).

의사소통을 할 때, 특히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은 반응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의사소통의 내적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반응이 반사적이 아닌 일치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정문자, 2003).

의사소통의 내적 과정을 살펴보면 7단계로 나눈다(Banmen & Makibanmen, 2002). 첫째, 보고 듣는 것; 보고 듣는 것을 아무런 감정이나 해석 없이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둘째, 의미; 보고 듣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본다. 셋째, 의미에 대한 감정; 의미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가 살펴본다. 넷째, 감정에 대한 감정; 감정에 대한 감정을 살펴본다. 다섯째, 방어; 어떤 방어가 나오는지 본다. 여섯째, 규칙; 의사소통에 대한 가족규칙을 살펴본다. 일곱째, 반응; 외적 반응이 무엇인가 살펴본다. 상대방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행동이 외적 반응이다.

고영복(1977)은 전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소통은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경험의 공유에 의한 소속감을 얻고, 상대방과의 관계 확립에 의한 안정감을 획득하며,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과 접촉에 의한 정서적 안정 혹은 만족, 필요한 정보 입수, 기분전환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의사소통이란 인간 상호간의 접촉을 유지시켜 주는 과정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생각, 의견, 감정, 태도를 통하여 타인과 서로 주고받는 일련의 행동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의사소통의 요소 및 수준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Rogers(1951)와 Carkhuff(1969)가 제안한 “공감적 이해, 존중, 솔직성, 구체성, 직면, 자기공개, 즉시성의 태도를 어머니가 자녀에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Rogers는 핵심적인 인간관계의 변인으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솔직성의 태도를 조력자가 피조력자에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고 이를 피조력자가 왜곡 없이 지각하는 것을 피조력자의 인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존의 상담이론과 기법을 분석, 검토하여 Rogers의 세 핵심변인 외에 구체성, 직면, 자기공개, 즉시성 등을 조력관계에서 인성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인간관계 변인으로 제시하여 촉진적 인간관계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였다(Carkhuff & Truax & Berenson, 1967).

의사소통의 요소인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및 의사소통의 수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공감적 이해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로저스의 정의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준거틀을 정확하게, 그것의 감정적인 요소와 거기에 관련된 의미를 마치(as if)라는 사실을 망각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다”(Rogers, 1959, pp. 210~211). “공감적이라고 불리는 타인과의 존재 양

식엔 몇 가지 측면이 담겨 있다. 이는 사람의 사적인 지각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철저히 거함을 뜻한다. 이는 순간순간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변화와 두려움, 분노, 상냥함, 혼란, 또는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민감함을 포함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살며,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부드럽고 섬세하게 옮겨 다니면서 그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의미까지도 감지함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위협적일 때에는 그가 전혀 느끼고 있지 않는 느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그 개인이 두려워하는 요소를 겁먹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감지한 그의 세계를 전달해 주는 것도 포함한다.”(Rogers, 1975, p. 4). 위와 같이 로저스는 두 번에 걸쳐 공감적 이해를 밝혔다(정원식 외, 1999, 재인용). 박성희(1998)는 공감적 이해는 쉽게 말해 상대방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것처럼 맡고, 혀로 맛보는 것처럼 맛보고, 피부로 감각하는 것처럼 감각하는 것을 말한다(정원식 외, 1999, 재인용).

Carkhuff(1969)는 상담자가 얼마나 잘 공감적으로 지각하고 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5단계의 공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1단계; 상담자는 내담자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다.

2단계;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들을 반영하지만, 그 방법은 내담자의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3단계; 내담자의 진술을 상담자가 재 진술하는 것처럼 상담자는 내담자의 수준의 감정이나 의미로서 내담자에게 반응한다,

4단계; 상담자의 반응들은 내담자보다 심오한 단계의 표현들로서 내담자의 표현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5단계; 상담자의 반응들은 내담자의 표현수준을 초월하여 내담자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내담자의 감정들과 의미들을 유의미하게 한다.

## 2) 무조건적 존중(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상담자는 비판적 자세로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을 수용하고 이를 의사소통

을 통하여 표현, 전달하는데 그렇다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든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거나 용서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담자는 조력과정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윤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Patterson, 1974). Carkhuff(1969)는 존중은 조력자가 피조력자의 인간적인 가치와 잠재적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Rogers(1961)에 의하면 무조건적 존중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하여 따뜻한 배려를 하는 것이다. 이때 배려는 비소유적이고 상담자의 어떤 특정행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무조건적 존중은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건 간에 그를 존재하고, 성장, 발달할 필요가 있는 귀중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박성수, 1986. 재인용).

### 3) 순수성(genuineness)

Carkhuff(1969)는 촉진적 인간관계의 변인으로 Rogers(1961)의 3가지 변인 즉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솔직성 이외에 구체성, 직면, 자기공개, 즉시성 등을 제시하고, 촉진적 인간관계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Rogers(1961)에 따르면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통합되고 일치될 필요가 있는데 상담자는 내담자와 인간관계에서 어떤 가면을 쓰거나, 역할놀이를 하거나, 가식을 부리는 허구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가 되어야 한다. 상담자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일치되어야 한다. 즉 조력과정에서 상담자의 내면적 경험, 그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모두 일치되어야 내담자의 긍정적 인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하되, 비파괴적, 건설적으로 표현하여 내담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즉 상담관계를 증진시키고 내담자가 부정적 감정이나 경험을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하여야 되는가를 학습하도록 도와준다(박성수, 1986, 재인용).

#### 4) 구체성(concreteness)

구체성은 조력과정에서 피조력자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과 경험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논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성은 직접적인 질문으로부터 반사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관련된 문제 영역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촉매적인 역할을 한다(Carkhuff, 1969).

마정건(1988)에 의하면 구체성은 개인의 감정, 경험을 논의할 때 모호함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 대신에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조력자가 구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피조력자의 구체성을 증진할 수 있는데 이 결과 감정과 경험을 보다 명료하게 변별함으로써 피조력자의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조력자는 피조력자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때 조력자는 주로 “어떻게” “무엇”의 질문을 함으로써 문제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 5) 직면(confrontation)

직면은 피조력자가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 한 내용과 실제 그가 행동한 것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Gazda, 1973).

Carkhuff(1969)는 직면을 상담자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불일치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첫째, 내담자의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의 불일치, 둘째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과 행동과의 불일치 셋째, 상담자의 내담자 경험에 대한 지각과 내담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불일치를 언급했다. 이와 같이 직면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 태도 행동상의 모순점, 불일치점을 지각하여 이를 명료하게 지적함으로써 내담자의 새로운 통찰과 행동의 변화를 촉진한다.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직면은 개인으로 하여금 건강한 태도로 삶에 부딪쳐 나아가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Carkhuff, 1969). 그런데 직면은 피조력자의 부정적 측면이나 결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피조력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적 자질이나 잠재적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시켜 인간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킨다(Patterson, 1974).



또한 직면은 내담자에게 도전감을 주고 공격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일종의 발전된 수준의 공감적 이해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직면은 피조력자로 하여금 말과 행동, 사고와 감정,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의 불일치를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자기와 다른 사람들 및 세계에 대한 대안적이고 보다 객관적이며 덜 왜곡된 관점을 제공하게 된다(Egan, 1986).

#### 6) 자아개방(self-disclosure)

자아개방은 상담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 경험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자신도 내담자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이때 경험의 유사성과의 차이가 강조된다(Patterson, 1974).

자아개방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담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순수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촉진적 혹은 치료적 자아개방이라는 관점에서 개념화되어야 한다(Patterson, 1974). 내담자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상담자에 의한 일방적 자아개방은 내담자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마정건, 1989).

Carkhuff(1969)는 자아개방은 순수성의 한 측면이고 조력자와 피조력자가 개인적인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이 진실된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성은 감정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아개방은 정보나 사실의 공개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순수성과 자아개방은 구별된다.

#### 7) 즉시성(immediacy)

즉시성이란, '상담관계에서 카운슬러와 내담자 간에 현재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Patterson, 1974).

즉시성은 상담회기 중에 발생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Cormier(1998)는 상담자가 직접성 있는 진술들을 사용함으로써 제공되는 세 가지 목적들을 제안했다(임성문 외, 2004, 재인용).

첫째, 즉시성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당신 자신이나 내담자, 또는 형성된 관계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개방하도록 한다.

둘째, 즉시성은 형성된 관계나 언어적 상호작용들과 관련된 어떤 관점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토론을 야기한다.

셋째, 즉시성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탐색을 촉진시키고, 상담자보다는 내담자 자신이나 관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능한 상담자는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을 의사소통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자기를 표현한다. 즉시성은 조력과정에서 피조력자가 조력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할 때 조력자는 이를 민감히 지각하여 직접적으로 이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고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Carkhuff, 1969).

종합해 보면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내담자와 더불어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적 심리를 자유롭게 표현, 탐색하여 진정한 자기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 존중은 내담자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수용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허용하는 태도이다. 순수성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솔직하게 표현할 때 상담자는 진실되고 일치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구체성은 조력과정에서 피조력자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과 경험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논의하게 하는 것이다. 직면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 태도, 행동상의 모순점, 불일치점을 지각하여 이를 명료하게 지적함으로써 내담자의 새로운 통찰과 행동의 변화를 촉진한다. 자아개방은 상담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 경험을 공개하는 것이다. 즉시성은 상담관계에서 카운슬러와 내담자 간에 현재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 8) 의사소통 수준

Carkhuff(1969)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어머니의 의사소통 7개의 인간관계 변인(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별로 다섯 수준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Patterson(1974), Egan(1986), 박성수(1987)등이 연구한 것을 참고로 각 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마정건, 1988).

공감적 이해를 수준별로 정의하여 보면,

제1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언어적, 비언어 표현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명백하게 표현되는 자녀의 표면적 감정, 사고조차 정확히 지각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자신의 개념틀에 의해서 자녀의 감정, 사고를 왜곡하여 의사소통하여 자녀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제2수준은 어머니는 명백하게 표현되는 자녀의 표면적 감정, 사고를 지각하여 반응을 보이지만 주로 자신의 개념틀에 의존하게 때문에 자녀의 감정, 사고와 일치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

제3수준은 어머니는 명백히 표현되는 자녀의 표면적 감정, 사고를 정확히 지각하여 자신의 개념틀에 의한 왜곡 없이 의사소통 한다. 표면적 수준에서는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사고와 일치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의 내면적 감정, 사고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제4수준은 어머니는 언어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지 않고 있는 자녀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지각하여 이를 자신의 개념틀에 의한 왜곡 없이 의사소통 한다. 그러나 어머니 자녀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충분히 표현하지는 않는다.

제5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정확히 지각하여 이를 왜곡 없이 충분히 표현하여 자녀의 깊은 수준의 자기탐색을 촉진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의 적극적 성장 동기를 이해하여 표현한다.

무조건 존중을 수준별로 정의하여 보면,

제1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을 전적으로 무시한다. 자녀가 건설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없음을 명백히 표현한다. 자녀에 대한 존중과 긍정적

관심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

제2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을 거의 존중하지 않는다. 자녀의 감정에 인습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거의 무시한다.

제3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기본적인 존중을 표현한다.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4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깊은 존중과 긍정적 관심을 표현한다. 자녀로 하여금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깊은 존중과 관심을 전달한다.

제5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가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대단히 깊은 존중과 관심을 표현한다. 어머니는 자녀가 표현한 것을 넘어서 자녀의 인간적 가치에 몰입되어 의사소통한다.

순수성을 수준별로 정의하여 보면,

제1수준은 어머니는 자신의 느끼는 감정과 명백히 불일치되는 언어적 표현을 한다. 진실된 반응은 오직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

제2수준은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 사고를 진실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솔직한 반응은 오직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인간관계 발전이나 탐색의 기초로 건설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제3수준은 어머니의 감정과 언어적 표현이 불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진실된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다.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자신의 진실된 관여를 표현하지 않는다.

제4수준은 어머니는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을 솔직하고도 건설적으로 표현하여 자녀와의 인간관계 발전이나 탐색의 기초로 활용한다. 자녀에 대한 자신의 진실된 인간적 관여를 전달하나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제5수준은 어머니는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건설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자녀에 대한 자신의 진실된 인간적 관여를 아무 거리낌없이 자유롭게 충분히 표현하여 자녀의 자기탐색을 촉진한다.

구체성을 수준별로 정의하여 보면,

제1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문제상황에 대해서 오직 추상적이고 일반적 수준에 반응을 보인다. 어머니는 문제상황과 관련된 자녀 자신의 감정, 경험, 행동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제2수준은 어머니는 문제상황과 관련된 자녀 자신이 감정, 경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하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제3수준은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문제상황과 관련된 자기 자신의 감정, 경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나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논의 되어지지 않는다.

제4수준은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문제상황과 관련된 자녀 자신의 감정, 경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이들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이끌어 나간다.

제5수준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상황과 관련된 자녀 자신의 감정, 경험, 행동이 아주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논의 되어지고 어머니는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위하여 깊은 수준의 탐색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직면을 수준별로 정의하여 보면,

제1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사고, 행동의 모순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제2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사고, 행동의 모순에 대하여 모호하게 언급한다.

제3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사고, 행동의 모순을 지적하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모순점에 대하여 단순히 질문만하고 이를 명확하게 자녀에게 지적하지는 않는다.

제4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사고, 행동의 모순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자녀에게 지적한다.

제5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사고, 행동의 모순을 아주 명료하게 지적하여 자녀의 깊은 수준의 자기탐색을 촉진한다.

자아개방을 수준별로 정의하여 보면,

제1수준은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 경험에 관한 정보 공개를 적극적

으로 회피하려고 한다. 부득이 공개할 경우에는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 의사소통하여 자녀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제2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사고 행동, 경험에 관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결코 자진해서 자기노출을 하지는 않는다. 자녀의 질문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자기 공개를 하는데 자녀가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 간단하고 모호하고, 피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제3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존중하여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 경험에 관한 정보를 자진해서 자녀에게 제공한다. 이 때 제공되는 정보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못하여 어머니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못하다.

제4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존중하여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 경험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자녀에게 제공한다. 이 때 제공되는 정보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하여 어머니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제5수준은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존중하여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에 관한 극히 사적인 정보까지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자녀에게 공개한다. 이 때 제공되는 정보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상세하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는 자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자기탐색을 촉진하게 된다.

즉시성을 수준별로 정의하여 보면,

제1수준은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는 자녀의 표현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제2수준은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는 자녀의 표현에 대하여 대체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제3수준은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보여 자녀의 표현에 대체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나 그 내용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제4수준은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보

여 자녀의 표현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내용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제5수준은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녀의 표현에 매우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내용은 대단히 직접적이고 명료하여 자녀의 깊은 수준의 자기탐색을 촉진한다. 어머니는 자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백한 해석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 3.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특성

#### 1) 자아존중감의 개념

학자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self-concept),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존경(self-respect),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아평가(self-evaluation) 등 다양하게 지칭되며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태도, 감정 및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용어 중 자아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자아존중감과 구분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평가적 요소 중 하나로 부분적 개념 또는 하위범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특질들에 대한 자기 평가를 통해 갖게되는 하나의 신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상태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격 구인이다(어주경, 1998).

C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자기진술은 “나는 나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 “나는 적어도 나와 비슷한 연령과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들만큼 훌륭하다.” “나는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서 존중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나는 매우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판단은 대개 결과에 의해 지지 받는다.”“나는 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을 꽤 좋게 이해한다.”“나는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즐기며 그 일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등이라고 했다.

Forgus(1979)는 자아존중감을 자아상의 한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아존중감 즉 자기자신을 높이는 방식은 자아상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자아상이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 유능한가, 무능한가?, 현명한가, 어리석은가?,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미움 받는 존재인가? 등 자신을 긍정적 존재로 판단하는지, 혹은 부정적 존재로 판단하는가 하는 개념이다(김은영, 2000, 재인용).

이훈진(1999)은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써 자기 긍정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왕형숙(1999)은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긍정적인 평가 차원으로서 지속성이 있는 개인적 판단이라고 하고 있다. 김금숙(2003)은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국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기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적 태도로 자신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존재로 판단하는가 하는 개념이다.

## 2) 자아존중감의 특성

James(1963)의 자아를 한 개인의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자아에는 구성적 요소(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경험의 집합체로서의 자아)와 정의적 요소(자아 만족과 자아불만의 느낌과 감정들) 그리고 행동적 요소(자아추구 및 자아보존을 위한 행위들)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이 있다고 하였으며 실제적 성공 또는 성취는 개인의 목표나 기대, 열망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



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며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나 영역의 성취가 높을 때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Pires(1984)는 자아개념을 자신의 행동과 속성들에 대한 묘사와 평가를 반영하는 비교적 안정된 자아태도군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자아개념은 총체적 요소와 구체적 요소가 있다고 하였으며 구체적 요소는 6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영역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각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전반적인 자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자아개념의 요소들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들과 관련되어 형성된다. 특히 특정 영역에서의 성패가 전반적 자아평가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각 영역의 중요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여섯 가지 요인적 하위 척도들로 이루어진 그의 자아개념 척도는 아동의 다양한 발달영역들과의 관련연구에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구성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아개념을 단순한 총점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Hater(1982)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중다차원적 접근을 취하면서 총체적 자아와 자아의 구체적 하위영역들 간의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아동은 영역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에 있어서의 유능함이나 전반적인 자아가치가 아동의 자아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녀는 이러한 자아가치를 다섯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아동용 자아유능성 지각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PCSC : Harter, 1979, 1982)와 그 개정판인 아동용 자아지각검사(Self-Perception Profile Scale for Children, SPPC : Harter, 1985)를 개발하였다. 그녀는 자아존중감을 다섯가지의 하위영역(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용모, 행동품행)에서의 자아지각과 전반적인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자아가치 판단은 능력 평가가 아니며, 비록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의 점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나 그들과의 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자아평가 구성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rter(1982)의 개념에 기초하여 자아존중감을 6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하위영역별로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역량(scholastic competence)은 학교생활이나 학교성적과 같은 학업 수행에 대한 개인의 유능성 또는 능력을 지각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은 친구들에 의해 수용되는 정도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지,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지를 지각하는 것이다.

셋째, 운동역량(athletic competence)은 각종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함으로써 신체적 유능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것이다.

넷째, 신체외모(physical appearance)는 얼굴, 키, 몸무게 등 자신의 외모에 어느 정도로 만족해하는지를 지각하는 것이다.

다섯째, 행동품행(behavioral conduct)은 자신의 행동방식에 만족하는 정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정도, 옳은 행동을 하는 정도, 남들과의 다툼을 피하는 정도 등을 지각하는 것이다.

여섯째, 전반적 자아가치(global self-worth)는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며 자신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판단을 지각하는 것이다.



#### 4.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

자아존중감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형성, 발달된다.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가족구조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간 초기 관계형성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자녀가 자기가치와 자아존중감을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또는 기회를 주고 반응은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자기가치나 자아존중감이 낮게 형성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정문자, 2003). 자아존중감 형성에 작용하는 주요과정 중 반영된 평가 과정이란 주위 인물들로부터 반응과 평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획득해 가는 과정인데, 이는 자아존중감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타자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형성됨을 중요하게

본 견해이다(김지연, 1995; 김정선, 1996). 즉 자아존중감은 주위사람들과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고 그 중에서도 부모 또는 교사, 또래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고 본다.

자아존중감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첫째,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존중과 수용 및 관심의 정도이며, 둘째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서, 여기서는 개인이 성취하여야 할 객관적인 직위와 사회적 위치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Harter(1983)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발달을 연구한 결과, 아동이 8세 경에 이르면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잘 형성되며, 신체적 외관, 사회적 수용, 학업 성취 능력, 체육과 예술에 대한 소질 그리고 품행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고 보았다. 아동은 지각된 능력과 지각된 수용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한다. 지각된 능력은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중요한 영역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말하며, 지각된 수용은 부모나 친구,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각된 능력과 지각된 수용이 자기 평가에 동일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는 아동의 자기존중감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일찍이 Coopersmith(1967)는 자존감이 높은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수용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아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이 이행해야 할 명확한 행동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키며 설정된 한계 내에서 자녀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며, 가족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며 아동이 필요로 할 때 유능하고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송명자, 1996).

자기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사회적비교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자기존중감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5-6세부터 아동은 또래와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이 무렵부터 아동들은 능력뿐 아니라 옷차림, 소유물, 가정배경, 또래로부터의 수용도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아동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이러한 사회적 결과의 비교가 성공적일 때 바

람직한 자존감이 형성되지만 지적능력이 낮거나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저소득 계층의 아동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해가기 시작한다(송명자, 1996).

김양숙(1995)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수용 받고 지지받는다느 느낌을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고 따라서 자기 존중감이 높게 형성된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교 또한 자기존중감을 형성하는 주요요인이다. 특히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수용 받고 지지받는다느 느낌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 5.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양육태도와 다른 관점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한 것은 가족치료가 들어왔다. 이들의 연구에서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의사소통적 접근의 가족치료가들인 Ateson, Jackson, Haley, Weakland는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양식과 아동의 정신분열증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의사소통 분석의 가족치료가들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아 가족의 의사소통을 설명하는데는 공헌하였으나 부모의 의사소통에서 촉진적 기능이나 교육적 기능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들 연구에서 촉진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상담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상담에서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내담자의 인성 특성의 변화, 자아개념의 긍정적 변화, 사회 적응력의 향상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영규, 1993, 재인용).

송인섭(1990)은 가정환경의 요인을 통한 자아개념의 형성에 대한 접근에서 첫째, 자아개념 형성은 학습을 통한 결과의 총체이며, 둘째, 학습의 대부분은 중요한 타인의 평가에 의해 형성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들은 부모의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인정', '부모자신의 수

용’, ‘부모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은 자신의 과거 행동 또는 어린이 자신의 과거 성취에 따른 기대 역시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PET분야의 연구에서도 촉진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증진, 성취 불안의 감소, 인성 특성의 긍정적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영규, 1993).

Glauser(1979)는 의사소통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상성격을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지배적 통제적인 태도를 보여 자녀의 말을 경청하려 하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

둘째, 어머니는 의사소통과정에서 자녀의 메시지를 부정한다.

셋째, 의사소통과정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흔히 불일치하여 자녀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조력과정에서는 그 개인이 성장시 경험했던 중요한 타자들의 그 개인에 대한 태도와는 대립되는 무조건적 존중, 수용, 진실하고 솔직한 태도를 경험하게 해야한다.

Rogers(1951, 1961)는 조력자가 피조력자를 무조건적 존중하고, 그를 수용하고 그것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면, 피조력자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경험하고 조력자의 그러한 태도를 내면화 한다. 그리고 피조력자는 자신의 내적참조체제에 의해 자신과 환경 및 자극을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고유한 개성을 지닌 하나의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Miller(1971)가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공감적 이해, 존중, 순수성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 있는 상관성이 있다고 여겼고 부모의 구체적 지원반응을 많이 받은 청소년은 자신의 문제를 더 많이 자신해서 공개하며 높은 정서적 안정을 보인다고 보았다(김명우, 2003, 재인용).

자기개념은 한 개인의 자기지각이며, 이러한 지각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형성되는데, 그 형성과정에서 특히 의미 있는 타자의 강화나 자신이 수행결과에 대한 귀인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김양숙(1995)은 자녀의 성격발달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매개체인 언어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개인은 부모와 대화하는 내용, 태도 등에 따라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이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임을 보고하면서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Satir(1983)는 부모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모델이 되거나, 의사소통의 내용이 부정적일 경우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손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인간의 기본욕구로 간주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에너지의 자원이 되는데, 인간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를 느낄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며, 에너지가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강하고 유용한 것이 되어 현재 주어진 상황을 더욱 창조적이고 현실적이며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송성자·정문자, 1994, 재인용).

Satir(1991)의 성장모델에서는 개인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회복시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자원을 발견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한다. Satir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을 자기, 타인, 그리고 상황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자기’는 자신에 대한 애착, 사랑, 신뢰, 존중을 통해 갖게 되는 가치와 자신의 유일성을 말한다. ‘타인’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동질성과 이질성,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말한다. ‘상황’은 주어진 여건과 맥락을 의미하는데, 주로 부모나 원가족 삼인군에서의 상황을 말한다(정문자, 2003, 재인용).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이 촉진적 또는 비촉진적인가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장에서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 내 7개 초등학교 각 2학년 씩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대상 남자 254명, 여자 252명 총 50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19부(남 190부, 여 229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와 ‘자아존중감 검사’이다.

##### 1) 어머니의 의사소통 검사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arkhuff의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하여 마정건(1988)이 제작하고 정세용(1994)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한 ‘부모님의 촉진적인 의사소통 검사’를 본 연구자가 약간 수정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7개의 변인 즉,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별로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해서 총 42개 문항으로 5단계 수준 중 한 수준에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중 일부 내용을 본 연구자가 초등학생에 맞게, 그리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맞게 약간 수정하였다.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는 방식은 질문지 앞부분에 제시된 말을 어머니에게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평소 어머니와의 대화양식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지 5개의 문항 중에 고르게 한다. 응답에 대한 채점은 1수준 1점, 2수준 2점, 3수준 3점, 4수준 4점, 5수준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7개의 하위영역 검사 점수와 총점을 계산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수준은 촉진적이다.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의 하위요소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 위 요 소	문 항 번 호	문항수	Cronbach's α
공 감 적 이 해	1, 8, 15, 22, 29, 36	6	.70
무 조 건 존 중	2, 9, 16, 23, 30, 37	6	.76
순 수 성	3, 10, 17, 24, 31, 38	6	.64
구 체 성	4, 11, 18, 25, 32, 39	6	.58
직 면	5, 12, 19, 26, 33, 40	6	.52
자 아 개 방	6, 13, 20, 27, 34, 41	6	.66
즉 시 성	7, 14, 21, 28, 35, 42	6	.72

## 2) 자아존중감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는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지각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를 김치영(1987)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6개의 변인으로 즉,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 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별로 6개의 문항씩 36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4점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1점은 역량을 낮게 지각하는 것을 말하고, 4점은 역량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본 검사지는 긍정형으로 시작되는 문항과 부정형으로 시작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형식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반응을 위해 고안되었다. 아동은 두 문장 중 자신과 비슷한 쪽을 선택한 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지, 그저 그런지를 결정해서 “정말 그렇다”, “그저 그렇다”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 5, 6, 9, 12, 13, 14, 16, 19, 22, 23, 26, 27, 28, 29, 31, 33, 36번에 역문항이 있다.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자아존중감 검사의 하위요소에 대한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 위 요 소	문 항 번 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학 업 역 량	1, 7, 13, 19, 25, 31	6	.73
사 회 적 수 용	2, 8, 14, 20, 26, 32	6	.60
운 동 역 량	3, 9, 15, 21, 27, 33	6	.73
신 체 외 모	4, 10, 16, 22, 28, 34	6	.70
행 동 품 행	5, 11, 17, 23, 29, 35	6	.46
전반적 자아가치	6, 12, 18, 24, 30, 36	6	.64

###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SPSS 12.0

Windows를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Onw-way ANOVA), Tukey의 다중비교(TMC : Tukey's Multiple Comparison)에 의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하여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수준은 원래 이론적으로는 5수준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례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3수준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 하위검사의 총점을 문항수(6)으로 나눈 평균점수를 기준해서 비촉진, 기본촉진, 심화촉진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하위검사의 평균점수가 2.5미만인 경우 '비촉진', 2.5이상 3.5미만인 경우 '기본촉진', 3.5이상인 경우 '심화촉진'으로 분류하였다. '비촉진 수준'은 아직 성장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지 못한 수준이며, '기본촉진 수준'은 기본적인 대화만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고, '심화촉진 수준'은 대화가 이루어질수록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의 기초적인 특성을 넘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1$ ,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 해석 절차는 첫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전체 점수 차이를 검증하였고, 둘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 수준별로 자녀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소의 점수 차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분석하였다.

### 1.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에 대한 수준별 집단 사례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에 대한 수준별 사례 수를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에 대한 수준별 사례 수



빈도(%)

수준 하위요소	비촉진	기본촉진	심화촉진	유효사례수
전체	99(23.6)	233(55.6)	87(20.8)	419(100.0)
공감적 이해	113(27.0)	190(45.3)	116(27.7)	419(100.0)
무조건 존중	119(28.4)	163(38.9)	137(32.7)	419(100.0)
순수성	54(12.9)	171(40.8)	194(46.3)	419(100.0)
구체성	97(23.2)	183(43.7)	139(33.2)	419(100.0)
직면	111(26.5)	207(49.4)	101(24.1)	419(100.0)
자아개방	128(30.5)	211(50.4)	80(19.1)	419(100.0)
즉시성	117(27.9)	206(49.2)	96(22.9)	419(100.0)

<표IV-1>에 의하면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은 비촉진 23.6%, 기본촉진 55.6%, 심화촉진 20.8%이다. 하위요소 중 무조건 존중, 순수성, 구체성에서 심화촉진 사례수가 많이 나타났고, 자아개방이 비촉진 사례수가 많이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차이

가설1.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비촉진, 기본촉진, 심화촉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전체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IV-2>와 같다.

<표 IV-2>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차이

자아존중감 하위요소	수준	n	M	SD	F	Tukey검증
학업역량	비촉진	99	2.42	.65	4.72**	1,2<3
	기본촉진	233	2.44	.55		
	심화촉진	87	2.66	.64		
사회적수용	비촉진	99	2.55	.61	3.78**	1<3
	기본촉진	233	2.67	.52		
	심화촉진	87	2.77	.54		
운동역량	비촉진	99	2.34	.69	3.21**	1<3
	기본촉진	233	2.43	.65		
	심화촉진	87	2.59	.69		
신체외모	비촉진	99	2.23	.63	2.91*	
	기본촉진	233	2.23	.64		
	심화촉진	87	2.42	.67		
행동품행	비촉진	99	2.15	.43	10.35**	1<2<3
	기본촉진	233	2.30	.44		
	심화촉진	87	2.45	.50		
전반적 자아가치	비촉진	99	2.45	.65	17.70**	1<2<3
	기본촉진	233	2.74	.59		
	심화촉진	87	2.96	.52		

\* p<.05 \*\* p<.01 사후검증(1: 비촉진, 2:기본촉진 3:심화촉진)

<표 IV-2>를 보면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소 학습역량( $F=4.72, p<.01$ ), 사회적 수용( $F=3.78, p<.01$ ), 운동역량( $F=3.21, p<.01$ ), 신체외모( $F=2.91, p<.05$ ), 행동품행( $F=10.35, p<.01$ ), 전반적 자아가치( $F=17.70, p<.01$ )에서 통계적으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ukey에 의한 사후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특히 비촉진과 심화촉진에서는 신체외모를 제외한 자아존중감 하위요소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품행과 전반적자아가치에서는 비촉진, 기본촉진, 심화촉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이 촉진적인 경우가 비촉진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 3.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소와의 차이

가설2.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비촉진, 기본촉진, 심화촉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소(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역량 차이

어머니의 의사소통 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역량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IV-3>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하위요소 무조건 준중( $F=5.54, p<.01$ ), 순수성( $F=5.96, p<.01$ ), 구체성( $F=7.97, p<.01$ ), 직면( $F=5.90, p<.01$ ), 자아개방( $F=4.68, p<.01$ ), 즉시성( $F=4.00, p<.01$ )에서 수준별 차이에 따라 자녀의 학업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적 이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교생활, 학교성적, 학업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인 것처럼 자녀의 내적 준거틀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 자녀의 잘 잘못을 가려주고 학습 방법을 알려주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조언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IV-3>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역량 차이

의사소통 하위요소	수 준	n	M	SD	F	Tukey검증
공감적 이해	비 축 진	113	2.39	.57	1.97	
	기본축진	190	2.50	.58		
	심화축진	116	2.54	.64		
무조건 존중	비 축 진	119	2.39	.63	5.54**	1,2<3
	기본축진	163	2.44	.57		
	심화축진	137	2.62	.57		
순수성	비 축 진	54	2.34	.68	5.96**	1<3
	기본축진	171	2.41	.54		
	심화축진	194	2.59	.60		
구체성	비 축 진	97	2.29	.61	7.97**	1<2,3
	기본축진	183	2.49	.57		
	심화축진	139	2.61	.59		
직면	비 축 진	111	2.32	.57	5.90**	1<2,3
	기본축진	207	2.52	.56		
	심화축진	101	2.59	.66		
자아개방	비 축 진	128	2.40	.65	4.68**	1,2<3
	기본축진	211	2.47	.54		
	심화축진	80	2.65	.62		
즉시성	비 축 진	117	2.42	.62	4.00**	1,2<3
	기본축진	206	2.45	.56		
	심화축진	96	2.63	.63		

\*\* p<.01 사후검증(1: 비축진, 2:기본축진 3:심화축진)

Tukey에 의한 사후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특히 공감적 이해에 대한 의사소통을 제외한 하위요소에서 비축진과 심화축진에서는 학습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조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 수준이 축진적인 경우 비축진이 경우보다 학습역량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무조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은 자녀의 학습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의사소통 양식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상의 6가지 의사소통 양식에서 어머니의 대화가 촉진적일 경우 자녀의 학습역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의 의사소통 중에서 공감적 이해는 자녀의 학습역량과는 별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2)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사회적 수용과의 차이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사회적수용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사회적 수용 차이

의사소통 하위요소	수 준	n	M	SD	F	Tukey검증
공감적 이해	비 촉진	113	2.48	.59	8.86**	1<2,3
	기본촉진	190	2.74	.50		
	심화촉진	116	2.73	.56		
무조건 존중	비 촉진	119	2.56	.60	2.85*	
	기본촉진	163	2.69	.52		
	심화촉진	137	2.72	.54		
순수성	비 촉진	54	2.54	.67	4.74**	1<3
	기본촉진	171	2.61	.55		
	심화촉진	194	2.75	.51		
구체성	비 촉진	97	2.51	.61	4.72**	1<2,3
	기본촉진	183	2.71	.52		
	심화촉진	139	2.71	.53		
직면	비 촉진	111	2.59	.54	1.56	
	기본촉진	207	2.69	.56		
	심화촉진	101	2.71	.55		
자아개방	비 촉진	128	2.63	.58	1.30	
	기본촉진	211	2.66	.54		
	심화촉진	80	2.75	.55		
즉시성	비 촉진	117	2.53	.61	5.24**	1<2,3
	기본촉진	206	2.70	.51		
	심화촉진	96	2.76	.54		

\* p<.05 \*\* p<.01 사후검증(1: 비촉진, 2:기본촉진 3:심화촉진)

<표 IV-4>를 보면 의사소통의 하위요소 공감적 이해( $F=8.86, p<.01$ ), 무조건 존중( $F=2.85, p<.05$ ), 순수성( $F=4.74, p<.01$ ), 구체성( $F=4.72, p<.01$ ), 즉시성( $F=5.24, p<.01$ )에서 수준별 차이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수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면, 자아개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ukey에 의한 사후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순수성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촉진과 심화촉진에서는 사회적 수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적 이해, 구체성, 즉시성의 요소에서는 비촉진과 기본촉진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적 이해, 순수성, 구체성, 즉시성에서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촉진적인 경우 비촉진적인 경우보다 사회적 수용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감적 이해, 순수성, 구체성, 즉시성은 자녀의 사회적 수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감적 이해, 순수성, 구체성, 즉시성에서 어머니의 대화가 촉진적인 경우 자녀의 사회적 수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무조건 존중, 직면, 자아개방은 자녀의 사회적 수용과는 별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3)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운동역량과의 차이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운동역량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를 보면 의사소통의 하위요소 공감적 이해( $F=4.32, p<.01$ ), 무조건 존중( $F=3.79, p<.01$ ), 구체성( $F=2.86, p<.05$ ), 자아개방( $F=2.62, p<.05$ ), 즉시성( $F=3.92, p<.01$ )에서 수준별 차이에 따라 자녀의 운동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수성, 직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5>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운동역량 차이

의사소통 하위요소	수 준	n	M	SD	F	Tukey검증
공감적 이해	비 축 진	113	2.33	.67	4.32**	1<3
	기본축진	190	2.42	.66		
	심화축진	116	2.59	.68		
무조건존중	비 축 진	119	2.30	.68	3.79**	1<3
	기본축진	163	2.49	.65		
	심화축진	137	2.51	.68		
순수성	비 축 진	54	2.30	.61	1.59	
	기본축진	171	2.43	.68		
	심화축진	194	2.49	.68		
구체성	비 축 진	97	2.30	.66	2.86*	
	기본축진	183	2.49	.67		
	심화축진	139	2.48	.68		
직면	비 축 진	111	2.40	.54	1.33	
	기본축진	207	2.42	.56		
	심화축진	101	2.54	.55		
자아개방	비 축 진	128	2.34	.71	2.62*	
	기본축진	211	2.47	.63		
	심화축진	80	2.54	.70		
즉시성	비 축 진	117	2.31	.72	3.92**	1<3
	기본축진	206	2.46	.64		
	심화축진	96	2.56	.67		

\* p<.05 \*\* p<.01 사후검증(1: 비축진, 2:기본축진 3:심화축진)

Tukey에 의한 사후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즉시성 요소에서 기본적으로 비축진과 심화축진에서 운동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즉시성에서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축진적인 경우가 비축진적인 경우보다 운동역량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즉시성은 자녀의 운동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즉시성은 어머니의 대화가 축진적인 경우 자녀의 운동역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은 자녀의 운동역량과는 별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신체적 유능에 대해 지각하는 데는 어머니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자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명료화 시키는 것, 자녀의 감정, 사고, 행동의 모순을 명료하게 지적하는 것, 어머니의 감정, 사고 행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자녀가 자신의 신체의 유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4)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외모와의 차이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외모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외모 차이

의사소통 하위요소	수 준	n	M	SD	F	Tukey검증
공감적 이해	비 촉 진	113	2.22	.68	2.23	
	기본촉진	190	2.24	.63		
	심화촉진	116	2.38	.63		
무조건 존중	비 촉 진	119	2.14	.62	6.49**	1<3
	기본촉진	163	2.24	.64		
	심화촉진	137	2.42	.65		
순수성	비 촉 진	54	2.13	.60	1.56	
	기본촉진	171	2.27	.65		
	심화촉진	194	2.30	.65		
구체성	비 촉 진	97	2.17	.60	2.14	
	기본촉진	183	2.33	.65		
	심화촉진	139	2.26	.66		
직면	비 촉 진	111	2.24	.67	2.83*	
	기본촉진	207	2.22	.61		
	심화촉진	101	2.40	.68		
자아개방	비 촉 진	128	2.28	.63	.52	
	기본촉진	211	2.24	.66		
	심화촉진	80	2.33	.62		
즉시성	비 촉 진	117	2.17	.63	1.97	
	기본촉진	206	2.29	.64		
	심화촉진	96	2.34	.67		

\* p<.05 \*\* p<.01 사후검증(1: 비촉진, 2:기본촉진 3:심화촉진)

<표 IV-6>을 보면 의사소통의 하위요소 무조건 존중( $F=6.49, p<.01$ ), 직면( $F=2.83, p<.05$ )에서 수준별 차이에 따라 자녀의 신체외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적 이해, 순수성, 구체성, 자아개방, 즉시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ukey에 의한 사후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무조건 존중 요소에서 비축진 보다는 심화축진에서 신체외모에 높은 자아존중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조건 존중에서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축진적인 경우가 비축진적인 경우보다 신체외모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무조건 존중은 자녀의 신체외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무조건 존중에서 어머니의 대화가 축진적인 경우 자녀의 신체외모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공감적 이해,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은 자녀의 신체외모와는 별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외모 즉 얼굴, 키, 몸무게 등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하는 것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보다는 자신이 외모에 관심을 갖고 가꾸고 꾸미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5)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행동품행과의 차이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행동품행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를 보면 의사소통의 하위요소 공감적 이해( $F=9.68, p<.01$ ) 무조건 존중( $F=11.02, p<.01$ ), 순수성( $F=9.02, p<.01$ ), 구체성( $F=6.65, p<.01$ ), 직면( $F=6.20, p<.01$ ), 자아개방( $F=9.01, p<.01$ ), 즉시성( $F=9.96, p<.01$ )에서 수준별 차이에 따라 자녀의 행동품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ukey에 의한 사후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의사소통 모든 하위요소에서 기본적으로 비축진과 심화축진의 수준에 따라 행동품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수성, 구체성, 자아개방, 즉시성 하위요소에서는 비축진과 기본축진과의 수준차이에 따라서도 행동품행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모든 하위요소에서 촉진적인 경우가 비촉진적인 경우보다 행동품행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IV-7>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행동품행 차이

의사소통 하위요소	수 준	n	M	SD	F	Tukey검증
공감적 이해	비 촉진	113	2.18	.47	9.68**	1,2<3
	기본촉진	190	2.28	.42		
	심화촉진	116	2.44	.50		
무조건존중	비 촉진	119	2.16	.41	11.02**	1,2<3
	기본촉진	163	2.29	.47		
	심화촉진	137	2.43	.46		
순수성	비 촉진	54	2.09	.52	9.02**	1<2,3
	기본촉진	171	2.27	.42		
	심화촉진	194	2.38	.47		
구체성	비 촉진	97	2.15	.46	6.65**	1<2,3
	기본촉진	183	2.34	.40		
	심화촉진	139	2.35	.52		
직면	비 촉진	111	2.18	.41	6.20**	1<3
	기본촉진	207	2.31	.47		
	심화촉진	101	2.40	.49		
자아개방	비 촉진	128	2.17	.48	9.01**	1<2,3
	기본촉진	211	2.32	.40		
	심화촉진	80	2.44	.53		
즉시성	비 촉진	117	2.15	.45	9.96**	1<2,3
	기본촉진	206	2.32	.42		
	심화촉진	96	2.43	.51		

\*\* p<.01 사후검증(1: 비촉진, 2:기본촉진 3:심화촉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의 모든 하위요소에서 자녀의 행동품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에서 어머니의 대화가 촉진적인 경우가 자녀의 행동 품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전반적 자아가치와의 차이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전반적 자아가치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을 보면 의사소통의 하위요소 공감적 이해(F=20.26, p<.01), 무조건 존중(F=16.05, p<.01), 순수성(F=15.49, p<.01), 구체성(F=12.76, p<.01), 직면 F=6.18, p<.01), 자아개방(F=9.29, p<.01), 즉시성(F=18.29, p<.01)에서 수준별 차이에 따라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어머니의 의사소통 하위 요소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전반적 자아가치 차이

의사소통 하위요소	수 준	n	M	SD	F	Tukey검증
공감적 이해	비 축 진	113	2.47	.67	20.26**	1<2<3
	기본축진	190	2.72	.56		
	심화축진	116	2.97	.54		
무조건존중	비 축 진	119	2.47	.66	16.05**	1<2,3
	기본축진	163	2.76	.59		
	심화축진	137	2.89	.53		
순수성	비 축 진	54	2.36	.64	15.49**	1<2,3
	기본축진	171	2.67	.64		
	심화축진	194	2.86	.54		
구체성	비 축 진	97	2.45	.64	12.76**	1<2,3
	기본축진	183	2.78	.61		
	심화축진	139	2.83	.54		
직면	비 축 진	111	2.60	.68	6.18**	1,2<3
	기본축진	207	2.70	.60		
	심화축진	101	2.89	.53		
자아개방	비 축 진	128	2.58	.67	9.29**	1,2<3
	기본축진	211	2.71	.58		
	심화축진	80	2.95	.53		
즉시성	비 축 진	117	2.46	.66	18.29**	1<2,3
	기본축진	206	2.77	.55		
	심화축진	96	2.94	.57		

\*\* p<.01 사후검증(1: 비축진, 2:기본축진 3:심화축진)

Tukey에 의한 사후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의사소통의 모든 하위요소에서 기본적으로 비촉진과 심화촉진의 수준에 따라 전반적 자아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적 이해에서는 비촉진, 기본촉진, 심화촉진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전반적 자아가치가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존중, 순수성, 하위요소에서는 비촉진과 기본촉진과의 수준 차이에 따라서도 전반적 자아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모든 하위요소에서 촉진적인 경우가 비촉진적인 경우보다 전반적 자아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의 모든 하위요소에서 자녀의 전반적 자아가치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에서 어머니의 대화가 촉진적인 경우가 자녀의 전반적 자아가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가설3.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에 의하면 공감적 이해 요소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학업역량( $r=.113$ ,  $p<.05$ ), 사회적 수용( $r=.175$ ,  $p<.01$ ), 운동역량( $r=.147$ ,  $p<.01$ ), 신체외모( $r=.103$ ,  $p<.05$ ), 행동품행( $r=.227$ ,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323$ ,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IV-9>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구분	범례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
공감적 이해	Pearson Correlation	.113*	.175**	.147**	.103*	.227**	.323**
	Sig.(2-tailed)	.021	.000	.003	.035	.000	.000
	n	419	419	419	419	419	419
무조건 존중	Pearson Correlation	.169**	.117*	.124*	.164**	.242**	.315**
	Sig.(2-tailed)	.001	.017	.011	.001	.000	.000
	n	419	419	419	419	419	419
순수성	Pearson Correlation	.192**	.139**	.086	.081	.186**	.267**
	Sig.(2-tailed)	.000	.004	.078	.097	.000	.000
	n	419	419	419	419	419	419
구체성	Pearson Correlation	.211**	.116*	.113*	.063	.177**	.261**
	Sig.(2-tailed)	.000	.017	.021	.197	.000	.000
	n	419	419	419	419	419	419
직면	Pearson Correlation	.189**	.093	.099*	.088	.157**	.205**
	Sig.(2-tailed)	.000	.058	.043	.071	.001	.000
	n	419	419	419	419	419	419
자아 개방	Pearson Correlation	.163**	.112*	.115*	.030	.198**	.222**
	Sig.(2-tailed)	.001	.021	.019	.536	.000	.000
	n	419	419	419	419	419	419
즉시성	Pearson Correlation	.168**	.142**	.147**	.098*	.266**	.312**
	Sig.(2-tailed)	.001	.004	.003	.046	.000	.000
	n	419	419	419	419	419	419

\* p<.05 \*\* p<.01

무조건 존중 요소에서도 자아존중감의 학업역량( $r=.169$ ,  $p<.01$ ), 사회적 수용( $r=.117$ ,  $p<.05$ ), 운동역량( $r=.124$ ,  $p<.05$ ), 신체외모( $r=.164$ ,  $p<.01$ ), 행동품행( $r=.242$ ,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315$ ,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순수성 요소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학업역량( $r=.192, p<.01$ ), 사회적 수용( $r=.139, p<.01$ ), 행동품행( $r=.186,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267,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운동역량과 신체외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성 요소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학업역량( $r=.211, p<.01$ ), 사회적 수용( $r=.116, p<.05$ ), 운동역량( $r=.113, p<.05$ ), 행동품행( $r=.177,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261,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외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면 요소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학업역량( $r=.189, p<.01$ ), 운동역량( $r=.099, p<.05$ ), 행동품행( $r=.157,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2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수용, 신체외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개방 요소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학업역량( $r=.163, p<.01$ ), 사회적 수용( $r=.112, p<.05$ ), 운동역량( $r=.115, p<.05$ ), 행동품행( $r=.198,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222,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외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시성 요소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학업역량( $r=.168, p<.01$ ), 사회적 수용( $r=.142, p<.01$ ), 운동역량( $r=.147, p<.01$ ), 신체외모( $r=.098, p.05$ ), 행동품행( $r=.266,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312,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것이었다.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문제 1 :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2 :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특성은 어떠한가?

문제 3 :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소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소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제주시 내 7개 초등학교 각 2학년 씩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대상 남자 254명, 여자 252명 총 50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19부(남 190부, 여 229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자녀들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arkhuff의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하여 마정건(1988)이 제작하고 정세용(1994)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한 ‘부모님의 촉진적인 의사소통 검사’를 본 연구자가 약간 수정하여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검사는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지각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를 김치영(198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 결

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SPSS 12.0 Windows를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Onw-way ANOVA), Tukey의 다중비교(TMC : Tukey's Multiple Comparison)에 의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하여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을 살펴보면 심화축진(N=87) 20.8%, 기본축진(N=233) 55.6%, 비축진(N=99) 23.6%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소 학업역량( $F=4.72, p<.01$ ), 사회적 수용( $F=3.78, p<.01$ ), 운동역량( $F=3.21, p<.01$ ), 신체외모( $F=2.91, p<.05$ ), 행동품행( $F=10.35, p<.01$ ), 전반적 자아가치( $F=17.70, p<.01$ )에서 통계적으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의 하위요소와 자아존중감 하위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역량과의 관계는 무조건 존중( $F=5.54, p<.01$ ), 순수성( $F=5.96, p<.01$ ), 구체성( $F=7.97, p<.01$ ), 직면( $F=5.90, p<.01$ ), 자아개방( $F=4.68, p<.01$ ), 즉시성( $F=4.00,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적 이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수용과의 관계는 공감적 이해( $F=8.86, p<.01$ ), 무조건 존중( $F=2.85, p<.05$ ), 순수성( $F=4.74, p<.01$ ), 구체성( $F=4.72, p<.01$ ), 즉시성( $F=5.24,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면, 자아개방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역량과의 관계는 공감적 이해( $F=4.32, p<.01$ ), 무조건 존중( $F=3.79, p<.01$ ), 구체성( $F=2.86, p<.05$ ), 자아개방( $F=2.62, p<.05$ ), 즉시성( $F=3.92,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수성, 직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외모와의 관계는 무조건 존중( $F=6.49, p<.01$ ), 직면( $F=2.83,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적 이해, 순수성, 구체성, 자아개방, 즉시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행동품행과의 관계는 공감적 이해( $F=9.68, p<.01$ ) 무조건 존중( $F=11.02, p<.01$ ), 순수성( $F=9.02, p<.01$ ), 구체성( $F=6.65, p<.01$ ), 직면( $F=6.20, p<.01$ ), 자아개방( $F=9.01, p<.01$ ), 즉시성( $F=9.96,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자아가치와의 관계는 공감적 이해( $F=20.26, p<.01$ ) 무조건 존중( $F=16.05, p<.01$ ), 순수성( $F=15.49, p<.01$ ), 구체성( $F=12.76, p<.01$ ), 직면( $F=6.18, p<.01$ ), 자아개방( $F=9.29, p<.01$ ), 즉시성( $F=18.29,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감적 이해에서는 학업역량( $r=.113, p<.05$ ), 사회적 수용( $r=.175, p<.01$ ), 운동역량( $r=.147, p<.01$ ), 신체외모( $r=.103, p<.05$ ), 행동품행( $r=.227,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323,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무조건 존중에서는 학업역량( $r=.169, p<.01$ ), 사회적 수용( $r=.117, p<.05$ ), 운동역량( $r=.124, p<.05$ ), 신체외모( $r=.164, p<.01$ ), 행동품행( $r=.242,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31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순수성에서는 학업역량( $r=.192, p<.01$ ), 사회적 수용( $r=.139, p<.01$ ), 행동품행( $r=.186,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269,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운동역량과 신체외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성에서는 학업역량( $r=.211, p<.01$ ), 사회적 수용( $r=.116, p<.05$ ), 운동역량( $r=.113, p<.05$ ), 행동품행( $r=.177,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261,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외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면에서는 학업역량( $r=.189, p<.01$ ), 운동역량( $r=.099, p<.05$ ), 행동품행( $r=.157,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205,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수용, 신체외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개방에서는 학업역량( $r=.162, p<.01$ ), 사회적 수용( $r=.112, p<.05$ ), 운동역량( $r=.115, p<.05$ ), 행동품행( $r=.198,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222,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외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시성에서는 학업역량( $r=.168, p<.01$ ), 사회적 수용( $r=.142, p<.01$ ), 운동역량( $r=.147, p<.01$ ), 신체외모( $r=.098, p.05$ ), 행동품행( $r=.266, p<.01$ ), 전반적 자아가치( $r=.312,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2. 결 론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 수준은 기본축진, 비축진, 심화축진 순이다.

둘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집단간 차이)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특성은 신체외모를 제외한 학업역량, 사회적수용, 운동역량,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이 축진적일 때 높다.

셋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학업역량은 무조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에서 촉진적일 때 높다.

사회적 수용은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즉시성에서 촉진적일 때 높다.

운동역량은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구체성, 자아개방, 즉시성에서 촉진적일 때 높다.

신체외모는 무조건 존중, 직면에서 촉진적일 때 높다.

행동품행과 전반적 자아가치는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순수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에서 촉진적일 때 높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수용 받고 지지받는다라는 느낌을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받음으로써 자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고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즉시성에서는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모든 하위영역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높다.

순수성은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높다.

구체성은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높다.

직면은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역량, 운동역량,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높다.

자아개방은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높다.

즉,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이 촉진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이는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자원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촉진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즉,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에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어머니가 촉진적 의사소통을 통해 조력적 인간관계를 제공하는 것은 한 개인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3. 제 언



본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검사를 아동의 주관적 지각에 의한 평가 이외에 관찰이나 실제 부모의 지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제주도 제주시 초등학생을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초등학생의 경우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측정도구는 질문지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녀의 지각을 통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지각에 대한 측정방법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참 고 문 헌

- 고영규(1993).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영복(1977). 현대사회심리학. 서울 : 법문사
- 김금숙(2003).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명우(200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호(1989).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학동기 자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애랑(2002). 아동과 어머니가 지각한 언어 통제 유형의 일치여부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기개념.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은영(2000).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부적응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국(1998). 어머니의 의사소통수준 및 자녀의 성격유형과 학습된 무력감과와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정선(1996).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연(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2003).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학지사.
- 마정건(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성수(1986). 가정의 청소년 지도. **카운슬러협회보**, 한국카운슬러협회 제3권 2호
- 박성수(1986). **생활지도**. 서울 : 정민사
- 박성희(1998). **비행의 예방과 지도**. 미출판원고
- 박연호(1987). **인간 관계론**. 서울 : 박영사
-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변창진(1989). **주장훈련과 자기성장 훈련이 여중학생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명자(1996). **성장심리학**.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송인섭(1990).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 양서원
- 신수정(199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왕형숙(1999).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현영(1990).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이혜성(1996). **성장 심리학**.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훈진(1999).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성민 외(2004). **심리상담의 과정과 기법**. 서울 : 시그마프레스
- 임은미(1991). **고교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학.



- 장휘숙(1995). *가족심리학*. 박영사.
- 정문자(2003).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정세용(1994).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원식(1999). *카운슬링의 원리*. 교육과학사.
- Banmen, J., & Maki-Banmen, K.(2002). Satir's Systemic Brief Therapy-Level I. Unpublished Manuscript. *Satir Institute of the Pacific*. Richmond, BC.
- Bledsoe, J. & Wiggins, R.(1974). Self-concept and academic aspirations, of "understood" and "misunderstood" boys and girls in ninth grade. *Psychological Reports*. 35. 57-58.
- Carkhuff & Truax & Berenson(1967). *Beyond Counseling and Therap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Carkhuff, R.R.(1969). *Helping & Human Relations*, Vol. I, II,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and Co.
- Cormier, S. and Cormier, B. (1998). *Interviewing Strategies for Helpers: Fundamental Skills and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4<sup>th</sup>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Egan,G.(1986). *The skilled helper: a model for systematic helping and interpersonal relating* 3rd. ed. Monterey, California : brooks Cole Publishing Co.
- Gazda(1973). *Human Relations Development: A manual for educators*, Boston: Allyn & Bacon.
- Forgus, R.H. & Shulman, B.H.(1979). *Personality : a cognitive view*. London : Prentice Hall. Inc.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77-99.
- \_\_\_\_\_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de.)*. New York : John Wiley.
- \_\_\_\_\_ (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e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Hillsdace, N. J: Lawrence Erlbaum.
- James, W.(1963). *The Principle of psychology*. New York: Hlot, Rinehart & Winston.
- Maturana, H & Varela, F. (1987). *Der Baum der Erkenntnis*. Muenchen, Scherz.
- Patterson,C.H.(1974). *Relationship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Anderson,S.,Douds,J., & Carkhuff,R.(1967). *The Effects of confrontation by High and Low Functiong Therapists*. Unpublished research,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Pires, E. V.(1984). *Prie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s: Revised Manual*.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Rogers,C.R.(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_\_\_\_\_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_\_\_\_\_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 S.Koch(Ed.), *Psychology : A study of a science*. Now York : McGraw-Hill Book Co.
- \_\_\_\_\_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 \_\_\_\_\_ (1962).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 The core of Guidance.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 416~429
- \_\_\_\_\_ (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Rosenberg, M.(1965). Societh and the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Satir, V., & Baldwin, M.(1983). *Satir Step by Step: A Guide to Creating Cbange in Families*. Palo Alto, CA: Science & Behavior Books, Inc.
- Satir, V., Banmen, J., Gerber. K., & Gomori, M.(1991).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Palo Alto, CA: Science & Behavior Books, Inc.
- Schramm, W.(1971). *The nature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ommunication Level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Kim, Jung-Su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Chul-Soo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at relationship there is between mothers' communication level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For the study, the following questions are presented.

First, at what level mothers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self-esteem, which depends on the level of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s?

Third, what relationship is there between the sub-area of mothers' communication and that of children's self-esteem?

The study has been done among six graders in seven elementary school, from each of which two classes were chosen. A total of 506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254 boy students and 252 girl students. Among them, 419 (190 from boys and 229 from girls) were used as data

---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and the others were excluded because of lack of contents.

In an effort to survey the level of communication that children feel in communicating with their mothers, 'Parents Facilitated Communication Test' was used. To fit the level of graders, this test was revised by Jeong Se-yong (1994) from the model of Ma Jeong-geon (1988) produced on the basis of Carkhuff Indices of Communication. The test of self-esteem was conducted using a test adapted by Kim Chi-young (1987) from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 I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the communication level that they feel when conversing with their mother.

To this end, One-Way ANOVA with the use of SPSS 12.0 Windows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were applied to post verification. I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communication level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through 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s of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children are classified into 'basic facilitation', 'non-facilitation' and 'further facilitation'

Second, children's self-esteem influenced by their mothers' level of communication is higher when the level of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s is more facilitative in terms of scholastic competence, social acceptance, athletic competence, behavioral conduct, and global self-worth, almost all but physical appearance.

Third, children's self-esteem is higher at the facilitation level than at the non-facilitation level; they evaluate themselves positive when they get a feeling through the dialogue with their mothers that they are accepted and supported. Consequently, they come to have high self-esteem.

Forth, the lower factor of mothers' communication and that of children's self-esteem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That is, the more facilitative the level of mothers' communication is, the higher self-esteem their children have. Through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they can find their worth and recognize their merits and potentials. As a result, they have improved their self-esteem by utilizing them.

In conclusion, the more facilitative the level of mothers' communication is, the higher self-esteem their children have. In other words, mothers' communication level is related to the building and development of self-esteem of their children. Accordingly, in order to enhance children's self-esteem, mothers should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Mothers' assistance through their communication facilitation can be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veloping an individual into a valuable human. This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training program for mothers to enhance their communication skills.

부 록

<부록 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 59

<부록 2> 자아존중감 검사..... 68



# 설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 학년인 6학년도 벌써 1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이 설문지는 2종류의 질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과 어머니 사이에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질문지 앞부분에 제시된 말씀을 어머님에게 드린다면 어머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각 문항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 예들이 다섯 개씩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실제 어머니의 말씀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골라 그 번호에 체크(√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생활에서 자기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두개의 질문내용을 읽어보고 딱뽀이를 좋아한다면 왼쪽의 문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오른쪽 문항을 선택하세요. 만약 왼쪽의 문장을 선택했다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지, 그저 그런지를 결정해서 해당란에 √표를 하세요.

(만약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체크해 주세요)

	정말 그렇다.	그저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저 그렇다
1	딱뽀이를 좋아한다.	√	또는 딱뽀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설문지는 맞고 틀린 답이 없고 학교 성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한 문항도 빠짐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지의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6학년으로서 '나 자신'에 대하여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마지막 6학년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정선 드림





<부록 1>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 검사지**

1. **엄마! 성적표 여기 있어요.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큰일 났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요.**

- ① 이것도 공부라고 했니?
- ② 그래도 걱정은 되나보지? 걱정한다고 소용 있겠니?
- ③ 속이 상한 모양이구나.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졌으니.
- ④ 좀 더 잘하려고 애썼는데 도리어 성적이 떨어졌으니 실망이 크겠구나
- ⑤ 성적을 올리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겠구나.

2. **날씨가 더워서 짜증만 나고 공부가 잘 안돼요. 많이 해야 할 텐데요.**

- ① 넌 탓도 많다. 공부하는데 날씨가 무슨 상관이나?
- ② 좀 덥더라도 참고 해. 넌 끈기가 부족해서 걱정이야.
- ③ 그래. 더운데도 공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 ④ 더울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 ⑤ 넌 그래도 잘 참고 공부하는 거야.

3. **엄마 용돈 좀 주세요. 돈돈 하니깐 짜증나시죠?**

(예상외로 용돈을 많이 써서 부모님이 의아해 하셨던 경험을 생각해서 답하시오.)

- ① 넌 맨 날 돈 타낼 궁리만 하고 있니?
- ② 학생이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면 못써.
- ③ 짜증이랄 것까지 있니? 네가 돈을 헤프게 쓴단 말이지.
- ④ 자꾸 돈을 달라니깐 왜 걱정이 안 되겠니?
- ⑤ 네가 돈을 계획 없이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4. **클럽활동 부서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학년 초가 되어 여러 개의 클럽활동 부서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을 때)

- ①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 ② 중요한 문제니까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라.
- ③ 글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 ④ 우선 클럽활동 부서의 종류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 ⑤ 클럽활동 부서의 종류를 알아보고 네 적성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자.

5. **동생(형, 언니, 오빠, 누나)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이상해요.**

- ① 넌 항상 동생(형, 언니, 오빠, 누나)한테 지기만 하는구나.
- ② 너도 동생(형, 언니, 오빠, 누나)처럼 열심히 하도록 해라.

- ③ 동생(형, 언니, 오빠, 누나)이 너보다 더 나으면 기분이 이상한가 보구나.
- ④ 동생(형, 언니, 오빠, 누나)이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단 말이지?
- ⑤ 훌륭한 동생(형, 언니, 오빠, 누나)을 둔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비교하는 것 같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다는 말이구나.

**6. 엄마, 아빠 두 분이 결혼하셔서 행복하세요?**

- ① 애는 별 이상한 것 다 물어보고 있네.
- ② 사람이 꼭 행복해서만 사는 것은 아니야.
- ③ 만족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고 봐.
- ④ 다투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니까 잘 지내는 편이지.
- ⑤ 어떤 때는 괜히 결혼했구나 하는 후회도 들지만 나도 반성하고 아빠의 나쁜 점 보다 좋은점을 보려고 하니깐 그런대로 잘 지내게 되더라.

**7. 내 친구네 부모님은 친절하고 상냥하세요.**

(은연중에 우리 부모님과 친구의 부모님을 비교 했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 ① 그 집 가서 아주 살지 그러니?
- ② 엄마가 잘나지 못했더라도 네 행동만 바르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 ③ 친구네 부모님이 상냥하고 친절하신 모양이구나.
- ④ 친절하고 상냥한 부모님을 둔 친구가 부러운가 보구나.
- ⑤ 엄마도 네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길 바라는구나.

**8. 공부만 하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시험은 가까워 오는데 큰일 났어요.**

- ① 공부가 하기 싫으니 머리가 아프지. 넌 어째 그 모양이냐?
- ② 머리가 아파서 공부가 안 된단 말이지. 약이라도 먹고 잘 해봐.
- ③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가 안돼서 걱정이겠구나.
- ④ 하려고 해도 잘 안되니 얼마나 답답하겠니
- ⑤ 이렇게 중요한 때에 머리가 아프니 얼마나 걱정되었니.

**9. 학기말 고사 성적이 중간고사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큰일이에요.**

- ① 너처럼 해 가지고 성적이 올라갈 턱이 있니.
- ② 노력을 안했느니 그렇지. 성적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겠니?
- ③ 넌 노력을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러니?
- ④ 성적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 ⑤ 성적이 전부는 아니잖아. 인생에는 공부 말고도 중요 한 게 많이 있어.

10. **엄마 죄송해요. 집안 청소를 해 놓지 않아서.....**

- ① 언제는 네가 집안 청소 한 적 있니?
- ② 넌 내 할 일이나 똑똑히 해.
- ③ 청소를 했더라면 엄마 기분이 얼마나 좋겠니?
- ④ 좀 섭섭하구나. 공부도 해야 하지만 덜 바쁠 땐 엄마(아빠) 생각도 해줘야지.
- ⑤ 그래, 엄마 마음이 좀 섭섭하구나. 그러나 네가 공부하기 바쁜데 그런데 까지 신경 쓸 수 있겠니?

11.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 ①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는구나.
- ② 예습복습을 철저히 해가면 못 알아들을 리가 없다.
- ③ 선생님 말씀을 통 못 알아듣고 있구나.
- ④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
- ⑤ 왜 그럴까?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내서 해결해보자.

12. **전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싫은 부탁을 해도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건 신경을 전혀 안 써요.**

- ① 친구들이 싫은 부탁을 해도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고?
- ② 들어주기 싫은 부탁을 거절할 때 마음이 썩 불편한 것만은 아니구나.
- ③ 싫은 부탁도 거절하기 힘들고 아이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신경을 안 쓴단 말이구나.
- ④ 친구들이 너를 싫어할까봐 들어주기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단 말이나?
- ⑤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한다면서 아이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그게 어떻게 된 이야기나?

13. **엄마도 자랄 때 꾸중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 ① 난 꾸중을 들을만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었어.
- ② 왜 그런 걸 궁금해 하니? 너나 꾸중 안 듣게 잘하면 되지 않겠니?
- ③ 잘못했을 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지.
- ④ 엄마도 잘못된 일이 많았지. 그러니 꾸중을 들을 수밖에 더 있니?
- ⑤ 나도 꾸중을 많이 듣고 자랐어.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역시 어른들 말씀이 옳은 것 같아.

14. **엄마(아빠)는 저에 대해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 ① 너 그런 식으로 엄마를 실망시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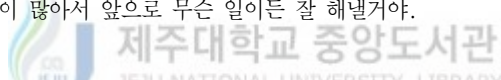
- ② 부모 마음은 다 그런거다. 열심히 따르는게 자식 된 도리 아니겠니?
- ③ 너에 대한 엄마의 기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나 보구나.
- ④ 엄마가 너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가져서 부담스러운가 보구나.
- ⑤ 엄마의 기대가 너무 커서 네게 채워주지 못할까봐 두렵고 짐스러운 모양이지?

**15. 맨날 공부 공부! 잔소리 좀 그만 하세요.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 ① 뭐! 네가 알아서 한다구? 알아서 한다는게 겨우 그거냐?
- ② 너도 지겹겠지만 내가 말 안할 수가 있겠니?
- ③ 잔소리를 들으니깐 기분이 나쁜 모양이구나.
- ④ 다 알아서 할텐데 엄마가 참견하니까 오히려 더 하기 싫어지는 모양이지?
- ⑤ 네게 모든 걸 믿고 맡겨두면 더 잘 할 수 있단 말이지?

**16.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원에 갔다 와서 숙제하고 나면 맥이 빠져요.**

- ① 넌 편한 것만 찾니? 그래 가지곤 아무 일도 못해.
- ② 학교 다니는 것이 그렇게 힘드니? 옛날엔 더 힘들게 공부하였다.
- ③ 그래. 공부에 시달리니 피곤할거야.
- ④ 공부하기도 힘들텐데 매일 학원까지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겠구나.
- ⑤ 그렇지만, 넌 참을성이 많아서 앞으로 무슨 일이든 잘 해낼거야.



**17. 제 거짓말 때문에 부모님이 화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 ① 그거 거짓말이었니?
- ② 다 큰애가 그렇게 거짓말 하면 못쓰는 법이다.
- ③ 그래 좀 화가 났다.
- ④ 이유가 어떻든 자식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구나.
- ⑤ 네 사정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화가 나는구나. 엄마랑 솔직하게 의논했으면 더 좋았을 걸

**18. 요즘 이상하게 불안해져요.**

- ①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는구나
- ② 참고 견뎌내야 한다.
- ③ 요즘 들어 부쩍 불안해지는가 보구나.
- ④ 뭐가 불안한거지?
- ⑤ 언제 어떤 식으로 불안해지는지 구체적으로 헤아려보도록 하자.

**19. 전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 ① 넌 기분나빠하길 잘하지.
- ②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니?

- ③ 넌 칭찬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 ④ 기분이 좋아야 할 때 거꾸로 기분이 나쁘다니 네 기분은 정말 알 수 없구나. 어떻게 해서 그렇지?
- ⑤ 칭찬을 받고도 기분이 나쁘다고?

**20. 엄마는 다른 사람 홍보신 적 있으세요?**

- ① 엄마는 남을 헐뜯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 ② 엄마가 남의 흉을 보든 안 보든 네가 마음 쓸 일이 아니다.
- ③ 세상에 흉 안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지?
- ④ 난 참을성이 부족해서 잘못된 사람을 보면 저절로 흉을 보게 돼.
- ⑤ 그러면 못쓴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못된 사람을 보면 참기가 힘들어서 흉을 보게 되지.

**21. 오늘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 사귀는 일 같은 것도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대요.**

- ① 딴 생각말고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해.
- ② 애야. 그런 건 더 큰 다음 생각해도 늦지 않아.
- ③ 하긴 친구를 사귀는 일도 중요하지.
- ④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 사귀는 일도 사람 살아가는데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단 말이지.
- ⑤ 그래 넌 네 친구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22. 친구들과하고 야영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꼭 보내주셔야 해요.**

- ① 넌 매일 놀 궁리만 하니? 공부는 언제하려고.
- ② 가고는 싶겠지만 학생들이 무슨 야영이야.
- ③ 이번엔 친구들과하고 야영을 꼭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 ④ 머리도 식힐 겸 이번엔 꼭 가야겠다는 말이구나.
- ⑤ 친구들도 사귄 겸 꼭 가고 싶은데 안 보내 줄까봐 걱정이 되는 모양이구나.

**23. 엄마는 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성적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것 같아요.**

- ① 제 할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니?
- ② 엄마가 관심이 없다고.... 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 ③ 엄마가 네게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 ④ 그래 엄마가 네게 신경을 못써줬구나.
- ⑤ 엄마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줬는데도 공부하느라 애를 많이 썼구나.

**24. 오늘 수업 끝나고 친구랑 영화 보러 갔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표 두장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왔어요.**

- ① 넌 못된 애들 닮아가려고 그러니? 학생이 영화는 무슨 영화니?
- ② 영화 같은 것 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
- ③ 친구나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 ④ 그런 일들 때문에 네가 공부에 소홀해질까봐 걱정이구나.
- ⑤ 엄마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에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구나.

**25. 우리 반에 굉장히 가난한 아이가 있어요.**

- 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는 거야.
- ② 학생들 가운데도 가난한 아이는 늘 있는 거 아니야?
- ③ 그 아이가 얼마나 가난 하길래 그러니?
- ④ 그 아이 가정 형편이 어떤지 알고 있니?
- ⑤ 넌 그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길래 그러니?

**26. 전 1학년 2학년 때는 참 잘했는데 6학년 되니까 공부가 잘 안돼요. 아무래도 제 머리가 나쁜가 봐요.**

- ① 6학년에 와서는 성적이 잘 안 오른단 말이나?0
- ② 네가 어려서는 공부를 참 잘했지.
- ③ 공부가 잘 안될 때도 있지. 그렇다고 머리가 나빠진 것은 아니지.
- ④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썩 잘한 사람이 머리가 나쁜 리가 없지.
- ⑤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좋았으니깐 네 머리는 분명히 좋은 거야. 실망하지 말고 좀 더 노력해봐.

**27. 난 공부하기가 싫어 죽겠어요. 엄마는 공부가 좋아서 했어요?**

- ① 너처럼 싫어하지는 않았어.
- ② 엄마야 환경이 나빠서 못했지.
- ③ 엄마라고 해서 공부가 싫을 때가 왜 없겠니?
- ④ 공부하기 싫은 때도 많았지. 어떤 때는 영 하기 싫더라.
- ⑤ 공부를 좀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나올 때는 정말 속이 상하더라. 그럴때는 학교도 가기 싫더라. 그러나 마음을 돌리고 다시 공부를 했지.

**28. 가끔은 엄마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기가 어려워요.**

- ① 다 키워 놓았더니 이젠 엄마를 따돌리기 까지 하는구나.
- ② 그래도 모든 일을 엄마와 의논해야 한다.
- ③ 엄마에게 네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기 어려운 모양이지?
- ④ 엄마에게 스스로없이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갖고 있나 보구나.

⑤ 할 말이 있지만, 편안하게 털어놓기에는 엄마가 어렵게 생각되나 보구나.

**29. 엄마는 너무하세요. 말썽꾸러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렇게 끊어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 ① 네가 지금 말썽꾸러기 만날 때니?
- ② 기분은 나쁘겠지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야.
- ③ 전화를 못 받게 해서 화가 난 모양이구나.
- ④ 전화를 못 받아서 화가 나고 친구한테 미안한 생각도 드는 모양이구나.
- ⑤ 엄마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네 입장을 생각해 주길 바라는 구나.

**30. 다른 학교로 전학 가니깐 정말 정신차질 수가 없어요. 자율학습도 많이하고 숙제도 많고 참 힘들어요. 선생  
님도 무섭구요.(만약 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를 생각하여)**

- ① 전학생은 힘든거야. 혼 좀 나봐야지.
- ② 넌 지난번 학교에서 너무 편했어.
- ③ 전학을 가니까 힘이 드는 모양이구나. 넌 열심히 하려고 늘 애를 쓰지.
- ④ 그래도 넌 참는 힘이 있어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 ⑤ 힘들지만 넌 잘 이겨내서 네 실력을 발휘할거야.

**31. 엄마 연락도 없이 늦어서 죄송해요. 걱정하셨죠?**

- ① 뭐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 네가 언제는 연락하고 늦었니?
- ② 지금이 몇 시니?
- ③ 걱정이 되지. 요새 별일이 다 있잖니? 밤늦게 다니면 안돼.
- ④ 웬일인가 걱정이 되지. 늦는다고 전화라도 하지 그랬니?
- ⑤ 연락도 없이 늦으면 걱정이 되잖니?

**32. 학교에서 소풍가는 것 재미없어요.**

- ① 소풍은 재미로 가는 게 아니야.
- ② 고학년 때 가는 소풍이 뭐 그렇지.
- ③ 이번에 어디로 소풍을 가기에 그러니.
- ④ 소풍을 가서 뭇들을 하기에 그러니?
- ⑤ 그래 1, 2학년 때 소풍하고 고학년 때 소풍이 어떤 점이 다르니?

**33. 시험을 잘 본 것 같은데 결과는 안 좋아요.**

- ① 성적이 또 떨어졌으니?
- ②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열심히 하도록 해라.
- ③ 결과가 기대에 따르지 못했구나.

- ④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속이 상한 모양이구나.
- ⑤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다시해도 안될 것 같아 막막한가 보구나.

**34. 부모님은 제 성격이 침착하지 못하다고 늘 나무라시는데요. 제가 보기엔 부모님도 차분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① 애가 못하는 말이 없네. 버릇없이 어른성격에 대해 따지다니.....
- ② 엄마의 성격이야 괜찮지 뭐.
- ③ 글썄. 엄마의 성격도 고칠 점이 있지.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많지.
- ④ 그래. 엄마의 성격이 좀 차분하지 못해서 화나면 누가 있긴 없긴 큰소리도 치고 하지.
- ⑤ 나도 너처럼 침착하지 못해 가끔 물건을 여기저기 빠뜨리기도 하지. 그런데 고치려고 해도 힘이 드는구나.

**35.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저에 대한 일을 결정하실 때 너무 부모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 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 ② 엄마가 잘 알아서 해 줄테니 넌 그저 부모 뜻에 따르는게 효도이다.
- ③ 엄마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되나 보구나.
- ④ 엄마가 너무 마음대로 하니 부담스러운가 보구나.
- ⑤ 엄마가 모든 일에 네 뜻을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하길 바라는구나.

**36. 저는 친한 친구가 없어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만한 애가 없어요.**

- ① 넌 친구 사귄 줄 몰라 큰 탈이야.
- ② 친구하고 어울리는 재미는 없겠지만 대신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 되잖아.
- ③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만한 친구가 없단 말이지.
- ④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서 외롭겠구나.
- ⑤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만 말이지.

**37. 형(누나, 동생, 오빠)보다 공부를 못한다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만 잘하면 다예요?**

- ①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러니?
- ② 그렇다는 이야기야. 왜 그렇게 떠드니?
- ③ 성적 가지고 비교해서 기분이 나쁘구나. 하긴 공부가 다는 아니지.
- ④ 넌 성품이 훌륭하지. 그래 성적보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한 거야.
- ⑤ 넌 성품이 좋아서 사회생활을 잘할거야.

**38. 엄마 보세요. 이번에 제 성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 ① 넌 애가 매사에 허풍이 그렇게 심하니?
- ② 성적이 올라가서 꽤나 기쁜 모양이구나.
- ③ 잘했다. 엄마도 기쁘구나.



- ④ 사실 걱정했었는데 네가 열심히 해 주었다니 고맙고 기쁘구나.
- ⑤ 무척 기쁘구나. 꾸준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39. 난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 ① 사람이란 불만이 있게 마련이야.
- ② 애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 ③ 엄마 아빠 사는데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니?
- ④ 엄마 아빠의 어떤 점이 왜 싫은지 이야기 좀 해 보겠니?
- ⑤ 어떻게 사는 것이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사는 건지 이야기 좀 해 보렴.

**40. 내가 좋아하는 친구일수록 접근하기 곤란해요.**

- ① 별 싱거운 말을 다 듣겠구나.
- ② 본 받을게 있는 친구라면 적극적으로 사귀어 보도록 해.
- ③ 좋아하는 친구일수록 접근하기가 더 곤란하단 말이지?
- ④ 좋아하는 친구일수록 네 태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두려운 모양이구나.
- ⑤ 좋아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나 보구나.

**41. 친구들이 저를 못 생겼다고 자주 놀려서 속상해 죽겠어요. 엄마도 못생긴 것 때문에 고민한 적 있으세요?  
(어머님도 생김새 때문에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답하시오.)**

- ① 못생겼건 잘생겼건 그게 무슨 문제니?
- ② 너희들 만날 때는 누구나 길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지
- ③ 엄마도 학생 때 못생겼다고 고민을 꽤 했었어.
- ④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았지만 못생겼다는 말은 들었지.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
- ⑤ 사람들이 나보고 통통해서 좋아 보인다고해도 그게 놀리는 말로 들릴 정도로 고민이 됐었어.

**42. 요새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① 네 할 일이나 잘 해.
- ② 이해고 뭐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 ③ 세대간의 차이란 언제나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니?
- ④ 요새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나?
- ⑤ 요새 어른들이 답답하단 말이지.



<부록 2> 자아존중감 검사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그렇다	그저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저 그렇다
1	공부를 잘한다.			또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한다.		
2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한다.			또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		
3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잘한다.			또는 스포츠를 잘하지 못한다.		
4	내 모습에 만족한다.			또는 내 모습에 불만이다.		
5	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내 행동을 좋아한다.		
6	가끔 내가 불만스러울 때가 있다.			또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7	다른 아이들만큼 똑똑하다.			또는 똑똑하지 못한 것 같다.		
8	친구가 많다.			또는 친구가 별로 없다.		
9	운동을 좀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는 운동을 잘 하는 편이다.		
10	내 키와 몸무게에 만족한다.			또는 내 키와 몸무게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11	언제나 옳은 일을 한다.			또는 가끔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2	내 생활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는 내 생활방식을 좋아한다.		
13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는 숙제를 빨리 끝마칠 수 있다.		
14	친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또는 친구가 충분하다.		
15	전에 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도 잘 할 수 있다.			또는 전에 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을 잘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16	내 몸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내 몸매가 마음에 든다.		
17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행동한다.			또는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8	거의 언제나 행복하다.			또는 가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19	배운 것을 잘 잊어버린다.			또는 배운 것을 잘 기억한다.		
20	무엇을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한다.			또는 무엇을 할 때 혼자서만 한다.		
21	같은 또래의 친구들 보다 운동을 잘한다.			또는 같은 또래의 친구들만큼 운동을 잘하지는 못한다.		
22	나의 신체적 모습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또는 나의 신체적 모습에 만족한다.		
23	내가 한 일 때문에 곤란해질 때가 있다.			또는 곤란해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24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이면 좋겠다.		
25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또는 별도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26	주위 사람들이 좀더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또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27	운동을 직접 하기보다는 구경하는 것이 더 좋다.			또는 운동을 구경만 하기보다 직접하는 것이 더 좋다.		
28	얼굴 모습이 지금하고 달라졌으면 좋겠다.			또는 지금의 내 얼굴모습에 만족한다.		
29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다.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30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			또는 지금의 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31	공부할 때 정답을 잘 알지 못한다.			또는 공부할 때 정답을 잘 안다.		
32	또래에게 인기가 있다.			또는 또래에게 인기가 없다.		
33	새로운 바깥놀이를 잘하지 못한다.			또는 새로운 바깥놀이도 금방 잘할 수 있다.		
34	잘 생긴 편이다.			또는 별로 잘 생기지 않았다.		
35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			또는 예절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		
36	내가 일하는 방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또는 내가 일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